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면	강원적십자사 선한이웃 성금모금 돌입 "세상을 밝...	1
江原日報	01면	한파 녹이는 온정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2
江原日報	27면	“ 추울수록 이웃과 함께 … 사랑의 온도 올려주세요...	3
강원도민일보	20면	'사랑의온도탑' 첫날부터 기부행렬… 도내 나눔열...	4
江原日報	27면	도의회 크리스마스실 결핵퇴치 성금 전달	5
MS투데이		“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도내 겨울나기 모금 시작[...	6
MS투데이		“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도내 겨울나기 모금 시작[...	7
에너지경제		권혁열 강원도의장, 결핵 환자 퇴치 성금 전달	8
江原日報	27면	강원 디자인페스타 개막	9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디자인산업 총망라 '2022 강원디자인 페스타'...	10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GJC 보증채무 2,050억 막판 고심	11
江原日報	03면	계수조정 논의하는 도의회 예결특위	1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조정	13
江原日報	05면	‘ 중도 특혜매각 의혹 ’ 수사 의뢰	14
연합뉴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GJC 토지 특혜 매각 의혹 수...	15
江原日報	07면	접경지역을 대한민국 선봉으로-종합토론	16
江原日報	07면	"70여년 안보논리에 일방적 희생 … 접경지 발전법...	16
江原日報	16면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도전	17
강원도민일보	01면	코로나 3년간 강원도-수도권 빈부격차 더 커졌다	18
江原日報	01면	기름 떨어져 가는데 … 오늘 철도까지 파업	19
江原日報	02면	道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닻 올렸다	20
강원도민일보	01면	내일 눈 · 비 한파특보 해제 오늘까지 맹추위 강풍까...	21
江原日報	26면	'캡틴 마스크맨' 기적 바라는 대한민국의 꿈 지켜줘!	22
강원도민일보	21면	벤투호 이제 남은 것은 포르투갈전 '전력질주'	23
江原日報	25면	[사설] 아파트 거래 절벽, 경제 위기로 이어져선 안...	24
江原日報	25면	[사설] 신입생 미달 현실화, 발등의 불 된 지역대학...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노인 보행 교통사고 대책 절실	26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인물 20면

강원적십자사 선한이웃 성금모금 돌입 "세상을 밝히자"

선포식 개최 모금 목표금액 수립
본지 김중석 회장 등 대표기부자
내년 1월 말까지 회비 집중 기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회장 이돈섭)가 1일 지사 로비에서 2023 적십자 선한이웃 성금모금 선포식을 열었다. 김정호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회장 이돈섭)가 1일 지사 로비에서 2023적십자 선한이웃 성금모금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표기부자로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는 2023년 모금 목표를 일반회비 15억원, 후원회비 12억원 등으로 수립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는 2023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설정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창립 117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에 2023년도 적십자 성금을 1호로 기부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성금이 강원도를 따뜻하게 밝히길 원한다"고 말했다. 권혁열 의장은 "자그마한 성의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던 적십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육동한 시장은 "한파가 시작됐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분들께 더 다가가야 할 시기"라며 "춘천시 역시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중석 회장은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특별한 도민이 있다. 시티즌십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성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돈섭 회장은 "적십자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1면

한파 녹이는 온정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기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모금 목표액은 83억6,000만원이다. ▶관련기사 27면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인물 27면

“추울수록 이웃과 함께 … 사랑의 온도 올려주세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희망2023 나눔캠페인’ 시작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도청 앞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2023 나눔캠페인’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강원’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2023년 1월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다. 캠페인 나눔목표액은 83억6,000만원으로, 캠페인 기간 도민들은 공지천 사거리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나눔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기부해 모은 후원금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위기 가정 지원, 사회적 돌봄 확대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유계식 회장은 “오늘은 올겨울을 힘겹게 맞이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날”이라며 “우리의 작은 정성과 배려가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사랑 나눔탑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8,360만원이 필요하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도씩 올려야 해 걱정스럽지만 우리에게는 고액 기부자인 아너들이 계신다. 강원도를 대신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권혁열 도의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박종원 KBS춘천방송총국장, 이희자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오정훈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 윤성태 (주)더존비즈온 부사장, 송미희 (주)현대메디텍 대표, 김정민 LH 강원지역본부장, 심재룡 (사)한국후계농업인강원도연합회장 직무대행, 임기수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 대표, 한금동 춘천시나눔봉사단장을 비롯해 고액기부자인 길광준·김형남 아너소사이어티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김민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인물 20면

1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 피켓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호

'사랑의온도탑' 첫날부터 기부행렬…도내 나눔열기 확산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막식

내년 1월까지 희망나눔캠페인

강원전역에 나눔의 온기를 나누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1일 시작됐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계식)는이날강원도청앞광장에서김진태도지사,권혁열도의장,신경호도교육감,육동한춘천시장,김진호춘천시의장, 홍기종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경민현강원도민일보부사장,유계식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가졌다.

'함께하는나눔,지속가능한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캠페인 목표액은 83억6000만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 캠페인첫날(주)더존비즈온이 1억5000만원, (주)현대메디텍이 1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강원 아너소사이어티에서는 6호 부부 아너 이상욱·신정예 씨가 1억원, 임기수·임재홍씨가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를 대표해 1000만원을전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500만원,(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300만원,춘천시나눔봉사단100만원의전달도이어졌다. 강원랜드도 사회공헌성금 기탁을약속했다.김진태지사는"집회가많은 도청 앞에서 오늘은 사랑의 온도탑을밝히게돼 훈훈하다.따듯한 마음이 모여 추운 날씨를 화끈하게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처칠의 말처럼 첫번째 촛불이 되어 이웃에게 희망이되어달라"고했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인물 27면

◇권혁열 강원도의장(사진 가운데)이 1일 도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회장: 황철)에게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실 증정 및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도의회 크리스마스실 결핵퇴치 성금 전달

강원도의회와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가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크리스마스실 판매 모금을 위한 증정식을 열었다.

결핵퇴치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증정식에는 권혁열 강원도의장을 비롯해 황철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회장, 강원도의원 출신인 김금분 부회장도 참석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도지부에서 2022년도 크리스마스실을 증정받고,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한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권 도의장은 "여전히 한해 1,4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ms투데이
2022년 12월 02일 (금)
사회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도내 겨울나기 모금 시작

서충식 기자

사랑의열매 성금 모금 62일간 진행, 목표 모금액 83억6000만원
같은날 대한적십자사도 모금 시작, 내년 1월까지 27억원 목표

1일 사랑의열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이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서충식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의 첫날부터 강원도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이 잇달아 시작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열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오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더존비즈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 주요 기부자가 자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72억7400만원) 대비 14.9% 증가한 83억6000만원이다. 코로나19 기간임에도 지난해 90억2700만원이 모금돼 목표액을 넘기는 기부 온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2억8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캠페인 기간 공지천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도민들의 기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 모금액의 1%인 8360만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된다. 성금은 강원지역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에서도 도민의 성원 덕분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며 “추운 겨울,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하루에 2도씩은 올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쉬운 일이 아니기에 걱정이 많지만. 오늘 참석한 아너소사이어티 분들과 같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꼭 100도까지 올라갔으면 한다”고 했다.

ms투데이

2022년 12월 02일 (금)
사회

1일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의 '2023 적십자 선한이웃 성금 모금' 선포식이 개최됐다. (사진=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제공)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도 '2023 적십자 선한이웃 성금 모금' 선포식을 개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대표기부자들의 성금 기부식이 진행됐다. 내년 1월 31일까지 27억원 모금이 목표다.

이돈섭 강원적십자사 회장은 "성금은 재난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안전교육 보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에너지경제

2022년 12월 01일 (목)
종합

권혁열 강원도의장, 결핵 환자 퇴치 성금 전달

강원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받고 성금 200만원 전달

박에스더 ess003@ekn.kr

▲권혁열 강원도의장(왼쪽 네 번째)은 1일 황철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회장(오른쪽 세 번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결핵환자 퇴치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강원도의회를 대표해 황철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회장에게 1일 오후 5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을 전달했다.

이날 권 의장은 황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결핵환자 퇴치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증정식은 항 결핵 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을 통한 성금은 결핵 환자 치료 및 자활을 돕는다. 또 결핵 환자 수용시설 지원과 대국민 결핵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등에 사용된다.

권혁열 의장은 "여전히 한해 1400여 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인물 27면

강원 디자인페스타 개막 2022 제1회 강원 디자인페스타가 1일 춘천시 후평동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 등 내빈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4면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디자인진흥원(원장 최인숙)이 주관한 디자인 페스타 개막식이 1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도내 디자인산업 총망라 '2022 강원디자인 페스타' 개막

11일까지 우수디자인 전시

강원도 디자인 산업의 발자취와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2022강원디자인 페스타'가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디자인진흥원(원장 최인숙)이 주관한 디자인 페스타는 1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개막, 오는 11일까지 우수디자인이 전시된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도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최인숙 원장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강원도형 디자인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디자인 분야 육성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형성 등 지역기업의 디자인 지원 등 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디자인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제1회 강원디자인 전람회 시상식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대상)에 '움직이는 양봉 모빌리티', 강원도지사상(금상)은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캐릭터(비상이와 수리) △몸안의 소화과정을 토끼 일러스트로 표현한 '레빗저스' 등이 선정됐다. 정승환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GJC 보증채무 2,050억 막판 고심

〈중도개발공사〉

예결특위 추경 심사 조정 지연

15일까지 상환 이행 공감대 속 소위 내부 동의 절차 등 이견

도 실·국장과 다시 질의응답 … 감사 가능토록 조치 요구도

속보=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강원도가 갚아야 할 채무보증 상환금 2,050억원을 두고 강원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1일 오전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증채무 상환금 2,050억원이 편성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이날 밤 늦게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위원은 앞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신청 발표 전 강원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 등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과 윤인재 산업국장 등과 다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위원들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강원도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빚을 갚는 대신 이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지분을 현재 44%에서 과반 이상으로 늘려 강원도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도정이 오는 15일까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보증을 상환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 금융시장 위기가 '레고랜드발(發) 사태'로 일컬어지면서 시장에서의 강원도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진태 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도 일부 반대기류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의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소위에 포함된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의원은 "앞으로 다시는 의회에서 추인 또는 포괄적 동의 등의 단어들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현안에 대해 별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8조8,629억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두고 심사한 결과, 감액보다 증액 규모가 커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오랜 시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1차 조정안에 포함된 전체 91개 조정사업 중 의원들이 신규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16개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3면

계수조정 논의하는 도의회 예결특위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1일 위원장실에서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조정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는 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에 나서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사회 05면

'중도 특혜매각 의혹' 수사 의뢰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청 전 글로벌통국장 A씨와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B씨를 강원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올 10월21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5분 발언에서 하석균 도의원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중도 내 일부 부지 특혜 매각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평화경제연구소 측은 "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토지가 헐값에 매각된 건이 관계기관에 의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연합뉴스

2022년 12월 01일 (목)
지역

강원평화경제연구소, GJC 토지 특혜 매각 의혹 수사 의뢰

강원평화경제연구소, GJC 토지 특혜 매각 의혹 수사 의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토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소는 매각 의혹이 일었던 당시에 재직했던 송상익 전 GJC 대표이사와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소는 특혜 매각 의혹 사례로 지난 10월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민의힘 하석균 도의원이 제기한 헐값 매각 의혹, 지난 5월 연구소 등이 연대한 단체에서 제기한 상가 용지 특혜 매각 의혹 사례를 적시했다.

또 지난해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기 위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용지를 도가 GJC로부터 되산 사례도 수사를 요구했다.

연구소는 "도민 혈세가 탕진되고 토지가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사례들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끝)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기획 07면

종합토론에서는 문성명 철원군 관광기획 개발실장이 철원군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한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의 관광사업 비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박기준 철원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박귀남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을 비롯한 10명의 토론자가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접경지역을 대한민국 선봉으로 - 종합토론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기획 07면

"70여년 안보논리에 일방적 희생 … 접경지 발전법안 서둘러야"

박기준 철원군의장

박대현 강원도의원

박귀남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전략실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손기웅 DMZ학회장(사회)

종합토론에서는 손기웅 DMZ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박기준 철원군의장, 박대현 강원도의원, 박귀남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전략실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등 10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기준 "평화안보분단기금 실효성 갖추고 주민들에 와닿아야"
박대현 "획기적 군사 규제 완화로 균형개발 이뤄낼 수 있어야"
박귀남 "관광·스포츠마케팅 통해 인구소멸 해법 찾고 법제화"
이춘만 "군납 무너지기 일보 직전 … 전문가들 집중 검토 필요"
김일용 "6개 접경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교육 위한 환경 구축"
김인호 "남북 환경·산림 위기 등 공통 문제 인도적 협력 가능"
최동식 "확충중인 도로망 실질적인 접근성 높아야 의미 있어"
김석만 "국가 차원 발전방향 제시 … 경제 활성화 아이템 발굴"
제성호 "강원도에 이산가족 정착촌 조성 … 지원법안 통과 필요"
홍순직 "정권 따라 접경지 정책 변경 안돼 여야 논의기구 구성"

■**박기준 철원군의장**=접경지는 아직까지도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다. 철원의 제일 현안은 포천과 철원 접경지 연장이다. 그 구간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앙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한다. 접경지는 73년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테두리와 중압감에 시달려 왔다. 접경지역법이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평화안보분단기금이 실효성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

■**박대현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로 인해 강원도는 획기적인 발전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군의 통폐합과 군납제도 변경 등으로 피해를 보면서 규제 완화의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 각 공유지를 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데에도 있다. 접경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자구 노력을 하는데 군사시설 해제에 관한 규제가 까다롭고 복잡한 매입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등 기존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사 규제가 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획기적으로 완화돼야 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박귀남 양구군의장**=강원도 접경지역은 산림 규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역이 됐다. 관광사업 등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위기 해결 방안을 잘 법제화시켜 접경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삶의 힘이 돼야 한다. 또 지역 고령층을 잘 케어하기 위한 요양시설, 보호시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최근 양구 등이 스포츠마케팅으로 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스포츠타운 건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춘만 인제군의장**=접경지역은 군부대가 없으면 바로 인구 소멸지역이다. 군 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가 형성되고 지역이 유지되지, 군부대에서 통폐합이나 무기의 최신화로 인해서 병력이 최소화되면 바로 접경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중앙정부나 도가 관심 가져주면 고맙겠다. 군납도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이 부분만큼은 교수님이나 많은 분께서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김일용 고성군의장**=접경지 6개 지역만이라도 삭도와 모노레일 등으로 하나의 광역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역 문화상품이 되면 강원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이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지역을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고, 교육의 불편함도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가시적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 등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접경지 지자체의 위기의식에 공감한다. 남북관계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접경지의 고민을 남북관계와 연관시켜서 보고 있고, 접경지를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필요하다면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이 환경 위기, 산림위기 등을 함께 겪고 있는 만큼 인도적인 협력도 가능하다. 신뢰를 구축하고 산불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민간 협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도로가 확충되고 있는데, 교통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강원도가 설렘을 주는 지역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설렘을 주는 지역이 된다면 길이 막히더라도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전략실장**=남북관계는 중앙정치권의 정치 권력 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해 왔다. 2018년만 해도 최문순 강원도정 당시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격상되면서 야심차게 출범했는데 올해 강원도정이 바뀌면서 본부가 1개 과인 접경지역과로 바뀌었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허울뿐인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접경지역은 70여년간 전쟁과 발전에 희생돼 왔다. 1990년대만 해도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안보에 종속된 상황에서 그러한 정신은 사라진 듯하다. 해외여행을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접경지로는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접경지역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이산가족 사업과 관련해서도 임진강이 상징성을 가지는데 강원도에 정착촌을 짓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접경지를 원활히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안 등을 통과시킬 필요도 있다.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정권이 바뀔 때마다 접경지역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견을 만들고,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하는 기구도 필요하다.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각 지자체마다 따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광범위하게 하고, 상품권 등도 함께 사용하면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리=박서화기자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지역 16면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도전

연 10만명 방문… 유치 의향서 제출 건물 신축 추진

【춘천】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T) 유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의향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연맹은 내년까지 유치 의사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유치 의향서를 받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에서 태권도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적 태권도 단체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태권도 운영을 교섭하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등 여러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시가 연맹을 유치할 경우 춘천시는 태권도 종주국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박찬흥 강원도의원은 도의회에서 강원도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등 유치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연맹은 전 세계 가입회원국 21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연간 1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당 참석인원이 1만~2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여명 이상이 회의 참석을 위해 춘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춘천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무상임대로 입주해 있으며 내년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11월30일 현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전국에서 춘천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송암동 스포츠타운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유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와 예산 문제 등을 협의 중"이라며 "연맹에서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춘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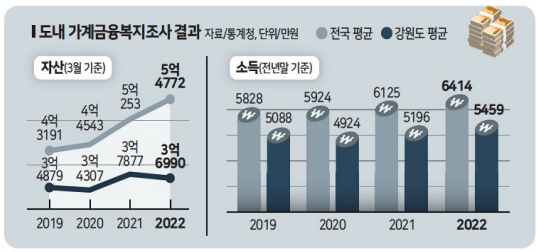
장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1면

코로나 3년간 강원도-수도권 빈부격차 더 커졌다

강원 부동산자산 증가 1332만원
수도권 1억4856만원 10분의 1
전체 자산규모도 강원 감소세
관광·음식·숙박업 등 위축 여파



지난 코로나19 3년간 강원도와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 증가 규모가 10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강원도 부동산 자산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2억 4551만원에서 올해 2억5883만원으로 3년간 1332만원(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3억7584만원에서 5억2440만원으로 1억4856만원(39.5%) 증가했다. 인천은 2억 4223만원에서 3억6602만원으로 1억 2379만원(51.1%), 경기도는 3억 3235만원에서 4억8111만원으로 1억 4876만원(44.7%)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4억6819만원에서 6억2544만원으로 1억5725만원(33.6%)이 늘었다. 강원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일었으나 강원도 전체로는 수도권의 10분의 1정도(금액기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적인 자산 규모도 강원지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자산 규모가 2019년 4억3191만원에서 올해 5억4772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한 것과 반대로 강원지역은 2019년 3억4879만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억4307만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 3억7877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3억699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음식·숙박업과 관광산업, 소상공인 중심인 강원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강원지역 소득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하락했다. 강원도 평균 소득은 2018년말 5088만원으로 전국평균(5828만원)의 87.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말 5459만원으로 전국평균(6414만원)의 85.1% 수준으로 하락하며 1000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2018년말 강원도 소득은 17개 시·도에서 충북(5042만원), 전남(4981만원), 경북(4830만원) 보다 높은 14위였으나 지난해 말 경남(5460만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지역 소득은 근로소득 2989만원에서 3080만원으로, 재산소득은 312만원에서 412만원으로 각각 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소득은 121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득5분위별 순자산 보유액은 고소득인 5분위(9억112만원)가 1년새 11.3% 증가했고 저소득인 1분위(1억4701만원)는 같은기간 5.2% 늘어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며 "시도별 자산, 순자산, 소득부문에서는 서울, 세종, 경기지역이 전국평균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1면

기름 떨어져 가는데 … 오늘 철도까지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 유류 재고 소진 주유소마다 북적
철도노조 9시부터 운행중단 예고 … 道 "대체 교통수단 운영"

속보=화물연대의 총파업(본보 11월30일자 1면, 1일자 8면 보도)이 장기화되며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은 물론 강원도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설상가상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류 대란 오나'…시민들 '사재기'**=춘천의 영업사원 천모(32)씨는 1일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가득 채웠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주유소 기름 재고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천씨는 "업무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 휘발유 품절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트럭 5대와 포클레인 3대를 운영하는 인제의 한 건설사도 직원들을 시켜 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미리 확보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내 1곳을 포함한 전국 49곳의 주유소에서 재고가 소진됐다.

■**레미콘공장 106곳 가동 중단**=도내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6곳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도 연쇄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비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며 숨통이 트이고 있다. 강원도 내 레미콘 업계는 3일을 이번 파업의 최대 고비로 전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철도노조도 총파업 예고**=설상가상으로 철도노조도 2일 오전 9시 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2일 오전 9시 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강원도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평시 대비 운행률이 KTX,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화물열차는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하루 9,000여톤인 시멘트 운송량은 2,000여톤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철도 화물 운송의 경우 운송 현황을 보며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대응계획 점검**=도는 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 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물류난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과 비타협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명록·신형철·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2면

道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닻 올렸다

22일 반도체교육센터 개소

속보=강원도가 연말 반도체교육센터(본보 11월17일자 1면, 29일자 2면 보도)를 가동한다.

반도체교육센터는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비전의 닻을 올리는 셈이다.

강원도는 오는 22일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유대학 협약식 개최를 계획 중이다.

내년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마중물 국비 예산 50억원의 정부예산안 반영이 확실시되면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주 동화농공단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 임시시설을 갖추고 내년부터 7개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학생들과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플랜을 짰다. 또 2027년까지 연 50억~70억원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반도체 교육장비를 확충하고 원주지역 5곳의 후보지 중 1곳에 교육센터를 정식으로 건립, 2026년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가 운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윤인재 산업국장 등이 이철규, 양향자 국회의원 등을 만나 강원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반도체교육센터는 국내 최초의 공공부문 주도 반도체 인력 교육시설로 대학과 기업 등이 장비와 공간을 공유하는 종합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강원테크노파크, 나노융합기술원 및 강원지역 반도체 공유대학,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특성화고인 원주공고, 반도체 기업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종합 01면

내일 눈·비 한파특보 해제

오늘까지 맹추위 강풍까지

강원도내산지를중심으로한파경보가 내려진가운데 2일에도매우추운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3~-8도, 영동 -6~-2도로 지난 1일 아침과 비슷하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15도내외로몹시춥겠다.낮 최고기온은영서0~3도,영동3~6도다.3일은서해상에서남서풍이유입되면서기온이차츰올라한파특보는해제되겠다.3일 아침 최저기온은영서 -7~-4도,영동-1~1도며낮 최고기온은영서4~6도,영동9~12도가 되겠다.

3일 영서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이 있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축구 26면

'캡틴 마스크맨' 기적 바라는 대한민국의 꿈 지켜줘 !

◇안와골절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 손흥민. 연합뉴스

3일 0시 운명의 포르투갈전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순위				(1일 기준)
순위	국가	승무패	승점	득실차
①	포르투갈	2승	6	3
②	가나	1승1패	3	0
③	한국	1무1패	1	-1
④	우루과이	1무1패	1	-2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극적인 16강 진출을 노린다.

한국은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전을 치른다. 현재 1무 1패 승점 1점을 기록 중인 한국은 조 3위,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은 조 1위에 올라 있다.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한국은 포르투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지거나 비긴다면 탈락이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이기거나 비겨야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 한국은 2골 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16강에 오를 수 있다.

1점 차 승리 시 최소 3골 이상은 넣고 이겨야 한다. 우루과이가 승리할 경우에는 우루과이와 같은 점수 차로 이기면 16강에 오른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지금까지 딱 한 차례 맞대결을 벌였다. 20년 전인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함께 D조에 편성된 양 팀의 첫 A매치 맞대결은 한국의 1대0 승리로 끝났고, 공교롭게도 해당 경기는 조별리그 3차전이었다. 1차전에서는 '남미 징크스', 2차전에서는 '2차전 징크스'에 시달렸던 한국은 이번 경기는 징크스 없이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출격하게 됐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H조 톱시드인 포르투갈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소속),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르나르두 실바, 주앙 칸셀루(이상 맨체스터 시티) 등을 보유한 '스타군단'이다. 16강은 확정 지었지만 아직 조 1위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3차전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조 2위로 16강에 오른다면 우승후보 1순위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포르투갈의 일부 주축 선수들이 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누 멘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이상 파리생제르망), 오타비우(포르투) 등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벤 네베스(울버햄프턴),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후벵 디아스(맨체스터 시티) 등은 경고를 1장씩 가지고 있어 경고 누적으로 16강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벤치에 앉혀둘 수도 있다. 이들의 대체자도 충분한 포르투갈이지만 스쿼드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도 부상 변수가 있다.

핵심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1차전에서 당한 종아리 부상으로 가나전 출전 이후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1, 2차전에 모두 결장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출전 여부도 미지수다. 안와골절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 중인 손흥민(토트넘)도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이기에 변수를 고려할 여유는 없다. 1993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서 극적으로 본선행 티켓을 따내며 '도하의 기적'을 이뤄냈던 한국은 전력을 다해 또 다른 '도하의 기적'에 도전한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H조 조별리그 3차전 상대팀 전력 비교
3일 0시(한국시간)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

대한민국		포르투갈
※최고성적:4위(2002년)	역대 월드컵 성적	
11회	본선 진출	8회
2	16강 진출	4
1	8강 진출	2
1	4강 진출	2
파울루 벤투(53세, 포르투갈 출생)	감독	페르난두 산투스(68세, 포르투갈 출생)
손흥민(MF, 30세 183cm 토트넘)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FW, 37세 185cm 무소속)
아시아 A조 2위 (7승2무1패, 13득점/3실점)	카타르 월드컵 예선 성적	유럽 A조 2위, 플레이오프 진출 (5승2무1패, 17득점/6실점)
1승(1득점)	역대 전적(A매치)	1패
28위	피파 랭킹	9위
27.8세	선수 평균 연령	26.9세
181.0cm	평균 신장	182.7cm
약 2,200억원	전체 몸값	약 1조6,000억원
4-2-3-1	예상 포메이션	4-1-2-3

'16강 실낱 희망' 벤투호 무조건 승리 후 경우의 수 따져야
스타군단 포르투갈, 최강 브라질 피하려 전력 승부 전망
안와골절 손흥민 컨디션 회복 여부·김민재 부상 등 변수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스포츠 21면

벤투호 이제 남은 것은 포르투갈전 '전력질주'

3일 자정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부상 속출·옐로카드 변수 작용
조규성-이강인 골 결정력 희망

벤투호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제2의 도하의 기적'을 노리는 가운데 몇 가지 관전포인트들이 벤투호에 희망적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벤투호의 16강 진출 전망은 사실상 어둡다. 2연승을 기록한 포르투갈이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고 한국은 가나(승점 3)에 이어 3위(승점 1)에 자리했다. 한국의 16강 진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는 포르투갈전 승리다. 승리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가나-우루과이전에서 가나가 승리해선 안 된다. 상대는 막강한 전력의 포르투갈이지만 몇 가지 변수들이 제2의 도하의 기적을 기대하게 만든다.

먼저 포르투갈 주전급 선수 3명의 부상이다. 수비수 누노 멘데스(파리 생제르망)는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했고 미드필더 나닐루 페레이라(파리생제르망)는 훈련 도중 갈비뼈 부상을 입었다. 미드필더 오타비오(포르투)도 근육 부상을 당했고 회복세가 다소 느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춘천출신)의 첫 정상 훈련이 희망적이다. 황희찬은 지난 29일 포르투갈전을 대비한 훈련에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페레이라와 멘데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중앙 좌측 센터백과 좌측 풀백을 맡았다. 이들의 부상으로 후보선수가 나선다면 우측 윙어로 뛰는 황희찬이 약해진 포르투갈의 왼쪽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다.

게다가 포르투갈은 부상뿐만 아니라 '카드 관리'라는 변수도 가지고 있다. 월드컵에서는 옐로카드가 16강까지 이어진다. 조별리그 2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다면 그다음 경기는 출전할 수 없다. 만약 조별리그 1~2차전에서 경고 1장을 받고 3차전에서 1장을 더 추가한다면 16강에는 나설 수 없다.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총 5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날 주심이 거침없이 퇴장을 주는 테요 심판이라는 점도 포르투갈에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테요 심판은 지난달 자국 컵대회인 '트로페오 데 캄페오네스' 결승전에서 10명을 퇴장시켜 유명세를 탔다. 그는 통산 118차례 프로경기에 나서 경고를 612차례, 퇴장을 45회 줬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스위스와 카메룬의 G조 1차전 주심을 맡아 스위스 2명, 카메룬 1명에게 경고를 줬다.

벤투호도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벤투 감독이 가나전 직후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해 포르투갈전 벤치에 앉을 수 없다. 게다가 주축 선수들의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춘천출신)은 장점인 스피드를 살리지 못해 상대 수비진 공략에 애를 먹고 있다. '수비의 핵' 김민재(나폴리)는 우루과이전에서 입은 장딴지 부상으로 몸놀림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대신 가나전에서 머리로만 2골을 몰아친 스트라이커 조규성(전북)의 골결정력에 희망을 건다. 게다가 진가를 드러낸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도 희망적이다. 이강인은 지난 가나전에서 0-2로 뒤지던 후반전 12분 교체 투입되고서 1분 만에 조규성(전북)의 추격 골을 돕는 '택배 크로스'를 날렸다. 한 번의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천재적인 능력이었다. 이강인의 영향력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통계 서비스 '풋볼 데이터 플랫폼'과 사설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한국은 가나전에서 총 42개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중 약 5분의 1인 8개가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왔다. 심예섭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황희찬 등 선수들이 1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사설/칼럼 25면

아파트 거래 절벽, 경제 위기로 이어져선 안 돼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여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원주를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한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0월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84건으로 나타났다. 9월 994건에 비해 11.0%(110건) 줄었다. 전년 동월 2,742건에 비하면 67.8%나 감소했다. 특히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3년 1월 843건 이후 9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10월 말 기준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 역시 한 달 전 1,262세대에 비해 81.2%(1,025세대)나 급증한 2,287세대로 집계됐다.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사례의 영향으로 2021년 2월(2,340세대) 이후 제일 많은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 우려했던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정점을 찍었던 유동성 잔치가 막을 내리고 있다.

거래 절벽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실제 전·월세 계약은 오히려 늘었다. 10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3,675건으로 전년 동월 3,663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집을 구입하기보다 전·월세 입주를 통해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거래 절벽에 건설 실적도 모두 하락했다. 10월 강원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49건으로 전년 동월 1,983건 대비 5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도 1,151건으로 1년 전(1,800건)보다 36.1% 줄었다. 분양 실적과 준공 실적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5.7%, 47.8% 급감했다.

이런 때일수록 도내 실수요자들은 지역과 부동산을 미리 계획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 주택 구입 시기 등을 잘 결정해야 한다. 최근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산 사람들이 빚더미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위기가 우려된다. 극단적인 거래 절벽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장의 추이보다 한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 적시에 풀고 조이는 시의성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주택 시장 안정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것 또한 함께 풀어 가야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주택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江原日報
2022년 12월 02일 (금)
사설/칼럼 25면

신입생 미달 현실화, 발등의 불 된 지역대학 생존

지방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입학만 하면 성적이나 가계 형편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대학이 크게 늘었다. 이는 올 10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학(전문대 포함)은 2020년 4곳에서 올해 14곳이 됐다. 2020년 이후 3년간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 대학은 모두 85곳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은 한 곳도 없었지만 경기·인천에서 19곳이 나왔다. 나머지 66곳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이처럼 대학들이 전원 장학금이란 고육책을 쓰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는 역대 최다인 4만586명이었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 정원은 47만여명이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37만명 정도다. 이 같은 여파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지자 2~3년 전부터 첫 학기 등록금을 아예 안 받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만 지방대 신입생 모집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강원도 내 대학들이 본격적인 입학시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각 대학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틈타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도 신입생 유치전을 더욱 가열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말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마감 당시 도내 4년제 대학 9곳에서 2,000여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등 신입생 유치난을 겪었다.

대학은 지역경제, 산업 등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직결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 산업 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강원도에도 지역마다 대학들이 있다.

지난해 수시 모집 9곳 2,000여명 미충원
수도권 대학들은 규제 완화 틈타 정원 늘려
대학·지자체, 발상 전환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그동안 상아탑의 이름 아래 대학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학문과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대학의 역할 역시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 지역사회 안에서 대학의 존재는 한두 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은 사회의 여러 분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고, 상호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 상태다. 대학이 가진 지성과 아이디어는 사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고, 활기 넘치는 사회의 에너지는 대학의 비전을 창출하는 자료가 된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요소인 동시에 지역이 발전하는 길이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사설/칼럼 19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대책 절실

-전체 보행 사망자의 56.6%, 입체적 대안 마련해야

최근 5년 동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도로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들 중상당수는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하거나 우회전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차량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도 빠르고 안전하게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들 스스로 보행자 우선의 안전 의식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6575명, 부상자는 21만4247명입니다. 이 기간 연도별 사망자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노인이 3720명 56.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무단횡단 사망자 214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63.1%에 달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3년 동안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3명, 부상자는 1만2604명이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내 보행 중 사망자가 43.7%(9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측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은 우회전 시 반드시 일단 정지해 주위를 살피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통전문가들도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 스스로의 주의가 우선해야 합니다. 무단 횡단을 하지 말고 신호를 지키는 기본적인 보행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경각심과 안전 의식은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이 잠시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와 민가가 있는 도로에선 항상 보행자가 있다는 의식을 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의 준수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심층 분석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사설/칼럼 19면

국립호국원 미래지향 설계 필요

-횡성 덕촌리 선정, 보훈가족와 경제 기여도 높이길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이 국립호국원 조성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2020년 국립호국원 유치계획을 세운 지 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도내 후보지 7곳 중 최종 입지로 발표했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강원권에 국립묘지가 조성되지 않아 고향에서 영면에 들지 못한 서운함을 씻고, 고령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평안과 편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립호국원은 전국 일곱번째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권역별 국립호국원 시설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횡성에 조성되는 강원권은 430여억원을 투입해 2028년 11월 개원 목표로 추진됩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6월 착공에 들어가는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 1월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원도는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구축과 여러 행정 지원에 원활해야합니다. 강원도내 호국원 안장 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8000여명에 달하는데, 2만기 안치 규모 시설로 조성돼 넉넉하게 안장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경기와 서울 등 인접 지역 국가유공자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안장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훈 유족은 물론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많은 유입 요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전에 조성된 국립호국원과 차별화된 부대시설과 미래세대와 교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전략이 따라야합니다. 강원도는 남북분단의 현장이며 횡성은 3·1운동이 강렬하게 전개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역사성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역시 역사 기억·체험, 자연과 함께 휴식하는 친환경 국립호국원으로 조성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풍부한 콘텐츠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서비스하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공사 종료 때까지로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호국원 인력 채용,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는 물론 개원 이후 활발한 방문객 유입 방안이 나와야합니다. 국립호국원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또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문화에 상생효과를 내도록 지혜를 더 모아야합니다.